국민의힘 "일하는 비대위 구성" … 친윤 인사가 다수

황우여 위원장, 지명직 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지명
오늘 임명안 의결…정책위의장 정점식·사무총장 성일종 의원 내정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직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을 지명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위원 및 당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당 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가 13일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고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주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가 7인 체제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유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고 김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처음 국회에 들어온다. 현재 초선인 전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김 당선인의 경우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엔 3선이 되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됐다. 정 의원도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정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에 참여한다. 이로써 새 비대위는 주류 친윤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윤 선임대변인은 지명직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전임 '한동훈 비대위'(11명)보다 적은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선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과 전당대회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3선이 되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이 되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의총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협의만 거쳐 정식 임명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수석 전광삼 … 대통령실 3기 인선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했다.

총선일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29일 만이다.

3기 참모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한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때부터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민 정서와 여론 파악 기능 약화를 초래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심 수렴을 담당할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폐지했던 '제2부속실' 역시 부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됐다.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기용됐다.

비서실장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인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용됐고, 정무수석 자리는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이 채웠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지속되면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구원투수로 올리고, '여의도 정치'와 접촉면 확대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보실을 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은 전원 사의를 밝혔지만, 성태윤 정책실장 이하 정책라인과 이도운 홍보수석을 비롯한 홍보 라인은 유임됐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사회수석실은 한때 폐지가 검토됐으나 시민사회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존치하기로 결정됐다.

이로써 3기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된 3실장·7수석으로 확대됐다. 1기 대통령실의 2실장 5수석 체제와 비교하면 실장 1명, 수석 2명이 늘었다.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 등 개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尹 지지율 24%…"2주년 기준 6공화국 최저"

갤럽, "노태우 28%보다 낮아"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지난 10일 발표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총선 이후 한 달째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 당시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으며 넷째 주(23~25일) 진행된 직전 조사에선 1%p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도 4월 넷째 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올랐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 24%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다고 갤럽은 밝혔다.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49%), 문재인 전 대통령(47%), 이명박 전 대통령(44%), 김영삼 전 대통령(37%), 노무현 전 대통령(33%), 노태우 전 대통령(28%), 윤 대통령(24%) 순이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분야별 긍정률은 대북 33%, 복지 31%, 외교 30%, 교육 27%, 부동산 23%, 경제 19%, 인사 14%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인사·경제·부동산 정책 평가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이다"며 "의대 정원 확대 사안, 이종섭 전 장관 등 총선 전후 당정 인선 등의 여파로 짐작된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안규백·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오늘 국회서 '5·18정신 헌법수록 추진 간담회'

안규백·민형배 국회의원과 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등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동으로 13일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간담회 토론자로는 이재의 전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과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히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를 이끌어간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진실의 원칙에 호응하면서 마지막 원칙인 '기념과 정신 계승의 원칙'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진욱 당선자는 12일 "이번 간담회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화순군 Hwasun-gun
화순팜 LINE-UP
250 품목
베스트 선물은 다 모였습니다! 빵빵한 라인업
화순팜 www.hwansunfarm.go.kr

굴비세트

미니 파프리카

대추방울토마토

발효소곰

적벽한우
화순군 청정 먹거리 대표 쇼핑몰 화순팜